

광주시·전남도, '한강 노벨상 시상' 지역민 축하행사

시, 오늘 오후 8시 시청 시민홀 시민 편지 쓰기·강연·공연 다채도, 오후 4시 전남도립도서관서 책 나눔·온라인 독서토론 마련

광주시와 전남도가 한강(사진) 작가의 노벨문학상 시상식에 맞춰 시도민과 함께 축하하는 행사를 마련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스웨덴에서 진행되는 노벨상 시상식 일정에 맞춰 10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시청 시민홀에서 '광주에서 온 편지'를 주제로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기념 시민 축하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오후 8시 소설 '소년이 온다'가 '한강을 뛰어넘는 한강의 소설'이라고 평한 신형철 서울대 교수의 강연으로

시작된다. 그동안 지면과 매체에서 단편적으로만 접할 수 있었던 신 교수의 작가를 향한, 그리고 그날의 광주에 대한 열정적 현사를 섬세하고 단정한 그만의 세련된 언어로 들어볼 수 있다.

오후 10시부터는 광주시민과 지역을 대표하는 문학단체, 작가 등단을 준비하는 문예창작과 학생 등 평소 한강 작가의 작품과 문학을 즐기는 광주 시민 모두가 한마음이 돼 축하의 장을 펼친다.

1부 행사에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선후

배, 동료 작가들이 함께 시낭송과 시극을 통해 문학인의 밤을 수놓는다. 2부 행사에서는 음악과 미술, 극예술 등 다양한 예술 장르로 재탄생한 '한강의 시간'을 만나볼 수 있다.

한강 작가에게 보내는 광주시민들의 아주 특별한 편지쓰기는 노벨상 시상식과 함께 11일 자정에 시작된다. 시민들의 편지는 한 권의 책으로 엮여 한강 작가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행사 마지막에는 인공지능(AI) 홀로그램으로 복원된 '소년이 온다' 주인공 공 '동호'의 실제인물인 '문재학 열사'를 만나 볼 수 있다.

전남도는 10일 오후 4시 전남도립도서관에서도 민 축하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는 작가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문학 특강, 시 낭송, 수상 축하 편지 낭독, 지역 문화예술인이 참여하는 축하 공연 등으로 치러지며 도립도서관은 한강 작가의 124회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책을 빌리는 도민 124명에게 선착순으로 장미꽃 한 송이를 선물한다.

전남도문인협회 또한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등 한강 작가의 저서를 참석자에게 나눠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장흥군에서는 스웨덴 현지 노벨상 시상식 시간에 맞춰 10일 오후 11시40분께부터 안양면에 있는 한승원 문학학교에서 축하행사를 열고 지역 주민과 함께 노벨문학상 시상식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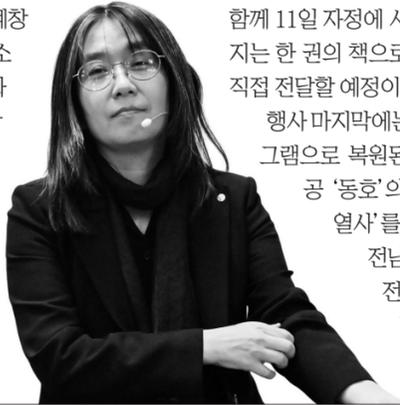
한강 작가가 당부한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같은 날 오후 7시 한강 작가의 대

표작인 '채식주의자'를 읽고 서로의 감상평과 생각을 교류하기 위한 온라인 독서토론도 열린다. 토론회는 먼 거리에 거주하는 도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줌(zoom)에서 진행한다.

전남도립도서관을 포함한 전남도 75개 공공도서관에서는 시상식 당일인 10일부터 31일까지 '도서 연체 특별 해제 행사'를 추진한다. 이 행사는 도서 연체로 책을 빌릴 수 없었던 도민을 대상으로 행사 기간 연체 도서를 모두 반납하면 바로 대출정지를 해제하는 특별 이벤트다.

한편 전남도는 현재 문학박람회 개최 기본계획과 전남 문학상 수여 등을 포함한 전남도 문학 진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등 지역 문화와 예술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노병하·오지현 기자



시·도지사 "계엄 사태" 내년 사업 예산 조기 집행

민생경제·안전 대책 등 강조 행정 안정·취약계층 보호 주력

광주시와 전남도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민생경제와 시도민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강기정 시장은 9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경제 불확실성도 커진 만큼 내년 추진 상황을 예의주시해 민생경제를 보살피고,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강 시장은 "금융시장 불안감이 가중되고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지역 충격 파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럴 때일수록 민생을 살피는 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 내년 사업 조기 집행 등 행정이 할 수 일들을 찾아 시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어려울 때일수록 행정이 안정되고 차질없이 시정을 운영해야 한다"며 "각 실국에서도 민생 현안을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강 시장은 특히 "추운 날씨에 많은 시민들이 5·18민주광장에 모여 나라와 경제를 걱정하고 있다"며 "시민의 안전과 보호는

행정의 제1 의무이다. 시민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이날 실국장 현안 회의를 열고 "도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안정, 겨울철 혹한기 취약계층 돌봄 등 행정 본연의 일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비상계엄 때문에 내년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 저성장이 예측되는 등 비상 상황"이라며 "여기에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 현상 심화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만큼 경기를 진작하고, 서민경제가 잘 돌아가게끔 내년도 전남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예산을 조속히 집행토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 내년도 예산 감축 때문에 민생 추경 편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도 정부 민생 추경이 성립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미리 대비하자"고 당부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경기가 어려울수록 취약계층은 더욱 힘들어진다"며 "이럴 때일수록 민생안정대책을 촘촘히 챙겨야 한다"고 덧붙이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노병하·오지현 기자



북구, 비상대비 민방위 장비 검열

광주 북구청 민방위팀 직원들이 9일 북구청 지하 민방위 비축물자창고에서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태세 구축을 위해 화생방 방독면, 응급세트 등 민방위 장비를 검열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 만족도 조사

광주시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세부사업 추진과 관련해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오는 17일까지 실시한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 8월부터 추진 중인 제3기(2024~202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것이다.

조사는 단일임금보장 마련을 위한 3개 사업과 복리후생증진을 위한 10개 사업에 관한 것으로, 처우개선 대상시설 649개소 종사자 3900여명 중 600명을 무작

위로 선정해 실시한다. 총 11개 문항으로 이뤄진 설문은 처우개선 세부 사업 중 어떤 사업에 만족하는지, 시설에서 어느 정도 반영해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담고 있다.

광주시는 전문업체의 분석을 거쳐 설문조사 결과를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세부적인 정책방향 수립 때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노병하 기자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